

사회

“No Vote! No Kiss!” 젊은이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 “말하기보다 듣겠습니다” 유세 차량에 후보 대신 유권자

■ 지방선거 이색 선거운동 유세 대신 모내기 돕기 오토바이 민생 대장정



한 유권자가 21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와 서대석 서구청장 후보·이병완 서구의원 후보 등을 상대로 유세하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이날 후보들이 유세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말하게 하는 ‘듣기 선거운동’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투표하지 않으면 키스도 하지마라.” “풀뿌리 민심을 듣습니다.” “유세 대신 농활 합니다.” 선거운동이 진화하고 있다. “나를 찍어주면 ○○○ 하겠다.”라는 방식은 한참 뒤쳐진 ‘버전’이다. 젊은이들의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찌면 민감할 수 있는 ‘섹스’ 문제를 건드리기도 하고, ‘말하기(유세·游說)’를 포기하고 ‘듣기(유청·游聽)’만 하는 후보들도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긴 하나,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20대 투표 독려를 위해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지역 각 대학을 순회하며 ‘No Vote! No Kiss!’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투표하지 않았으면, (연인과) 키스도 하지 말라’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미국에서 유행했던 ‘No Vote, No Sex’ 캠페인을 패러디한 것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벌써 화제가 되고 있다. 윤 후보는 각 대학을 돌며 대학생들을 위한 시립기숙사 건립 등의 ‘20대 특화공약’을 수록한 ‘20대 전용명함’까지 뿌리며, 지지세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광주시장 후보와 서대석 서구청장 후보·이병완 서구의원 후보 등은 21일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앞에서 ‘말하기보다 듣겠습니다.’라는 선거운동을 펼쳤다. 유세 차량에는 후보를 대신 유권자들이 올라갔다. 주부 이희진

(43)씨는 “선거 때만 와서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소리치지도 말고, 친환경 무상 급식이나 사교육 없애기 같은 꼭 필요한 문제 하나라도 해결하라.”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민중당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는 선거운동 첫 날부터 지역구 내 대촌동 모내기 돕기에 나섰다. 최 후보는 “막상 가보니 일손이 너무 부족해 다음주에는 지방의원 후보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의회 마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석 후보는 최근 출시된 미국 애플사에서 만든 태블릿형 컴퓨터인 아이 패드를 미국에서 공수, 선거운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아이 패드를 들고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즉각 공약 설명과 유권자들의 애환을 기록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들도 안간힘이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소외계층의 교육문제를 상담해주는 순회 상담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김장현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유권자를 만날 때마다 김장독에서 명함을 꺼내서 건넨다. ‘김장독’처럼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취지다. /최권일·박진표기자 cki@kwangju.co.kr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불기 2554년 석가탄신일인 21일 광주·전남 지역이 화창한 날씨를 보인 가운데 주요 사찰에서는 봉축법요식이 열려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처평동 무각사에는 정치인과 기관 단체장, 사대 부중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이 열려 대대비한 부처님 공덕을 기렸다. 법요식은 명고(鳴鼓)와 명종(鳴鐘) 의식을 시작으로 향·동·괘·꽃·일·차·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앞에 올리는 육법공양,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의 예를 갖추는 삼귀의 등으로 이어졌다.

또 이날 광주 향림사에서도 봉축법요식이 열려 부처님 공양과 중식, 관불식이 진행됐다. 법요식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뜻에 따라 만물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면서 향림사에서 운전자수지를 도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이와 함께 순천 송광사에도 예년보다 많은 4000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이 열렸으며 장성 백암사, 영암 도갑사, 해남 대흥사 등 전남 지역 주요 사찰과 암자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탄신을 봉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폐휴대전화 모아 불우이웃돕기

1대 1000원 수익...담양군·광주 북구 수거 운동

담양군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폐휴대전화 모으기에 나섰다. 폐휴대전화에는 금을 비롯한 은, 구리 등 재활용 가능한 금속이 있어 수거해 처리시 최종적으로 1대당 100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담양군은 올해 7월 말까지 한 가구당 1대씩 총 4000대의 휴대전화를 모으기로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사회단체와 군 부대·일반 가정을 중심으로 폐휴대전화 모으기 운동을 나섰다. 군청 민원과와 12개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18곳에는 폐휴대전화 전용 수거함도 설치했다.

폐휴대전화 반납자 가운데 추천을 통해 축복원과 소쇄원, 가사문학관 등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권도 제공키로 했다. 광주시 북구도 다음달까지 각 가정과 직장에 방치돼 있는 폐휴대전화를 모아 판매한 뒤, 남은 수익으로 불우이웃돕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휴대전화 한 대에는 금 0.034g, 은 0.25g, 구리 10.5g 가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폐휴대전화 판매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인재육성 장학 기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라며 “사람 속에 잠들어 있는 폐휴대전화가 이웃사랑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금남지하상가 붕괴 광주시 수습본부 구성

광주시가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와 관련, 수습 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수습 및 복구에 나섰다. 시는 21일 송구근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지원본부를 꾸리고 관련 실·국장을 긴급 소집해 사고수습 및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금남지하상가 붕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관련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에 정부차원의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줄 것과 함께 진상조사와 추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피해보상 등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시가 구성한 수습지원본부는 ▲북구지원 총괄반 ▲안전관리 대책반 ▲전당건설 대책반 ▲홍보대책반 등 4개 대책반으로 구성했으며, 사고현장 안전대책 강구와 사고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 안전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중앙과의 협의를 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돈선거 신고 포상금 7430만원

선관위, 역대 최대액수 지급

중앙선관위(위원장 양승태)는 21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모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조직원들에게 58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이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74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돈선거 신고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6000여만원이 최고액이었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범죄를 신고한 28

건의 사례에 대해 제보자 38명에게 총 1억 4천200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공천헌금이나 조직관리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는 특성상 내부의 신고나 제보 없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선거사부 관계자가 신고, 제보할 경우 본인이 연루돼 있더라도 자수자 특례규정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만큼 내부의 신고 제보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남스



동심은 벌써 여름. 광주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2도를 기록한 21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송산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더위 식히는 비 주말·휴일 최고 200mm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광주·전남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해안과 동부내륙지방에서는 24일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고 21일 예보했다. 24일 광주·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20~60mm. 아침 최저기온은 15도~18도, 낮 최고기온은 19도~23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 0.5~2.0m로 일다가 오후에는 2.0~4.0m로 점차 높게 일겠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금남공원서 盧전대통령 추모제

서거 1주기...광주시, 시청앞 분향소 설치 불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추모제가 애초 예정됐던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으로 장소가 변경돼 22일 열린다. 21일 (고)노무현 전 대통령 광주추진추모위원회에 따르면 추모위는 이날 금남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22일 오후 6시 추모제를 갖고 시민들과 함께 고인의 넋을 기린다. 추모위는 22일 오후 7시부터 금남공원 일대에서 추모 노래공연, 추모 영상시청, 시민 추모발언 행사 등을 열 예정이다. 당초 추모위는 지난 17일 옛 전남도청 정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고, 서거 1주기인 23일 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옛 전남도청 앞 금남지하상가 상판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 붕괴 등을 우려해 21일 금남공원으로 분향소를 옮겼다. 또 추모위는 이날 분향소 이동 과정에서 분향소 설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웠다. 이날 추모위는 분향소를 옛 도청에서 광주시청 앞 문화광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시청 측의 불허 방침에 의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추모위는 분향소를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으로 옮기려 했으나 추모제를 치르기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판단, 결국 금남공원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한편, 노 대통령 서거 1주기인 23일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는 ‘노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식’ 및 고인의 박사·묘역 완공식이 열린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여수 항일암 70대 추락사 자살 추정 사망경위 조사

지난 20일 오후 6시경 여주시 돌산읍 항일암에서 박모(72)씨가 10m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택시기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택시기사 김모씨는 “터미널에서 박씨를 태워서 항일암 입구까지 갔고, 박씨가 곧 돌아오겠다고 항일암에 올랐는데 20분 넘게 돌아오지 않아 가봤더니 절벽 밑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에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화대 돌려줘” 고교생에 주먹질

○돈을 주고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으려던 20대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성매매를 알선한 고교생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불통. ○광주서부경찰은 21일 고교생에게 돈을 주고 10대 소녀를 소개받아 성관계를 맺으려던 신모(29·무직)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17)군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이군의 후배 김모(15)양을 소개받아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김양의 거부로 성관계를 갖지 못하자 이군을 찾아가 주먹을 휘둘렀다가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이 발각.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4분, 해질 19시 34분, 달돋이 13시 36분, 달질 01시 24분. 월요일까지 비.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부터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 18/20°C, 목포: 흐리고 비 17/20°C, 여수: 흐리고 비 17/19°C, 완도: 흐리고 비 17/20°C, 구례: 흐리고 비 15/21°C, 해남: 흐리고 비 17/20°C, 장흥: 흐리고 비 17/20°C, 고흥: 흐리고 비 16/20°C, 순천: 흐리고 비 16/20°C, 영암: 흐리고 비 17/22°C, 전도: 흐리고 비 17/20°C, 전주: 흐리고 비 17/24°C, 남원: 흐리고 비 14/23°C, 옥산: 흐리고 비 14/17°C. <오전> 바다: 풍향 동~남동, 파고 0.5~1.5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파고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파고 0.5~1.5m, 먼바다 동~남동, 파고 1.5~2.5m. <오후> 바다: 풍향 동~남동, 파고 2.0~3.0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파고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파고 2.0~3.0m, 먼바다 동~남동, 파고 2.0~4.0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날씨: 최저/최고: 17/23, 16/22, 14/25, 15/27, 15/27, 16/27